

6년 만에 세계선수권 의미 '설욕·증명의 무대'

박태환, 로마로 떠나 현지 적응 훈련 돌입

"6년이나 됐네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박태환(28·인천시청)에게 6년 만에 출전하는 세계선수권대회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묻자 가장 먼저 꺼낸 말이다.

박태환은 오는 7월 중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는 2017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담금질을 이어왔다.

지난 2월 중순 호주 시드니로 떠나 강도높은 전지훈련을 소화한 박태환은 4개월 만인 지난 15일 한국에 돌아왔다. 박태환은 짧은 휴식을 취한 후 18일 이탈리아 로마로 떠나 세계선수권대회를 위한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했다.

박태환이 통코스(50m)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2011년 상하이 대회 이후 6년 만이다.

박태환에게 6년 만에 나서는 세계선수권대회는 '설욕과 증명'의 무대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마찬가지로 박태환에게 영광이 모두 서려있는 대회다.

2007년 멜버른 대회에서 자유형 400m 금메달, 자유형 200m 동메달을 따 한국 수영 역사를 새로 쓴 박태환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도 자유형 400m 금메달, 자유형 200m 은메달을 따며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발돋움 했다.

하지만 2009년 로마 대회에서는 '참사'를 맞았다.

2009년 로마 대회에서 자유형 200m·400m·1500m에 출전한 박태환은 모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인 박태환은 질척부실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에 오르며 부활을 선언했다.

2011년 상하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박태환은 자유형 400m 정상을 탈환했다. 당시 예선에서 부진한 탓에 불리한 1번 레인을 배정받았고 기적을 연출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태환은 2013년 바르셀로나 세계선수권대회에는 휴식을 이유로 출전하지 않았고, 2015년 카잔 대회에는 도핑 징계로 출전하지 못했다.

그는 "2009년 로마 대회는 선수로서 반성하고, 깨닫게 된 대회였다.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다. 2011년 상하이 대회에서는 자유형 400m 금메달을 땀지만, 200m에서 4위에 그쳐 아쉬웠다"고 되돌아봤다.

박태환은 "2013년, 2015년 세계선수권대회를 뛰지 않아 이번 대회에는 부담



박태환은 오는 7월 중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는 2017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담금질을 이어왔다. 지난 2월 중순 호주 시드니로 떠나 강도높은 전지훈련을 소화한 박태환은 4개월 만인 지난 15일 한국에 돌아왔다. 박태환은 짧은 휴식을 취한 후 18일 이탈리아 로마로 떠나 세계선수권대회를 위한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했다.

이 있다며 "그간의 공백을 메우고 다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다. 마음 한 켠에 '증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6년 동안 박태환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 반응을 보여 18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 메달도 박탈당했다.

이로 인해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가 우여곡절 끝에 출전했지만, 전 종목 예선 탈락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리우올림픽에서 너무 큰 아쉬움을 남긴 박태환에게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는 '설욕의 무대'이기도 하다.

박태환은 "리우올림픽 결승 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내가 해볼 만한 경기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만 레이스를 하고, 자신의 레이스를 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훈련하면서 레이스 운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혼자 레이스를 하거나 다른 선수들과 맞춰 가다가 막판 스피트를 해야 하는데, 예선에서 작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스피트나 이런 면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훈련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이 박태환의 설명이다.

박태환은 "스피드 훈련 뿐 아니라 자유형 400m를 위해 중장거리 훈련도 했다. 지구력 훈련도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며 "스타트 턴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선수로서 기술적으로 계속 보완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30세를 바라보는 나이인 만큼 체력 훈련이 많아진 것은 달라진 점이다. 박태환은 "예전과 달리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태환은 "6년 전과 비교해 나이는 많아지고, 체력은 떨어졌다"면서도 "하지만 능숙하게 레이스를 하게 된 것은 좋은 점이다. 예전에는 겁이 났던

요즘에는 조심스러워진 것이 많다. 자신감이 생겨 능숙한 레이스도 가능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6년 만에 출전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박태환이 욕심내는 목표는 개인 최고기록 경신과 금메달 획득이다.

세계신기록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기도 했던 박태환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무리다. 목표는 개인 최고기록을 넘는 것"이라며 "내년 아시안게임이 세계기록을 경신하기 좋은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목표를 묻는 질문에 "금메달 따고 오겠습니"라는 말을 원하시는 것 같으며 웃은 박태환은 "금메달을 따겠다고 하고서는 못 따면 스스로 아쉬움이 클 것 같다.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끼는 듯 했다.

박태환은 "금메달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결심한 듯 "아니다, 금메달을 따고 오겠다고 당차게 각오를 다졌다"

/김민근기자



YG "지드래곤 USB 앨범 붉은 번짐, 의도한 것"

YG엔터테인먼트가 한류그룹 '빅뱅' 리더인 지드래곤(29·권지용)의 '권지용' USB 앨범의 붉은색 번짐 현상에 대해 의도한 콘셉트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최근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 현장 등에서 USB 앨범을 구입한 팬들 중 일부가 인터넷에 "해당 앨범을 만졌더니 빨간 잉크가 손에 묻어 나온다" 등의 불만 사항을 드러내면서 이번 앨범이 불량품이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YG는 그러나 이에 대해 "음원 사이트에 공개된 USB 앨범 이미지를 보면 색이 번지고 스크래치가 많이 나왔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며 "지드래곤의 DNA와 모태 등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빨간색이 번지도록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USB 앨범 판매 전 이미 사전 공지를 통해 스크래치가 나거나 색이 지워질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얼마 전 USB 앨범 제작과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YG 관계자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프린트 작업과 달리 지드래곤이 표현하고 싶은 모태 의도와 콘셉트는 USB 외관에 붉은색 번짐과 빈티지한 스크래치 등을 만들어 내야 했다"며 "여러 시도 끝에 수작업으로 붉은색 잉크를 칠해야만 지드래곤이 원하는 느낌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의 이번 USB 앨범은 앞서 가요계에 음반이다·아니다라는 논쟁을 불러 일으키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뉴시스

'탑과 대마 흡연' 가수 연습생, 집행유예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및 추징금 87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차례에 걸쳐 항정신성의약품인 LSD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특히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재차 대마를 매수하기도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구속돼 있던 A씨는 이날 석방된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최씨와 함께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와 함께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2차례 피운 혐의도 있다.

A씨는 미리 구입한 대마초를 최씨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대마초 구입 및 조달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9일 열린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